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다보니



돈 보다  
잘난 거 보다  
많이 배운 거 보다  
마음이 편한게 좋다.

살아가다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다.

내가 살려하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게 다가 아닌  
마음이 편한게 좋다.

사람과 사람에 있어  
돈보다는 마음을  
잘남보다는 겸손을  
배움보다는 깨달음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대함에 있어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물의 한결같은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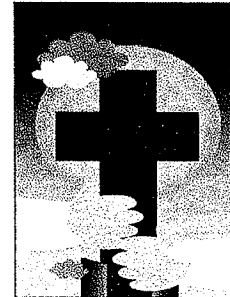
산다는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마음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너 때문이 아닌 내탓으로  
마음의 빛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뎨 그랬지▶ 오백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것 한 장이면 해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뱃돈으로 500원, 이빨 뽑으면 500원을 선물로 받고 버스요금을 이것으로 내면 200원 정도는 거슬러 받을수 있었습니다. 배추앞으로 불리면서 사랑받던 500원, 이젠 총무공 이순신의 얼굴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저 추억의 500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림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월23일
☎369- 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아내의 고백



말로만 들던 말기암과의 투병생활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가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야위어졌고, 다리와 발은 터질듯이 부어오르고..... 기적을 베푸신다면 어떤 곳이라도 목숨 걸고 주의 일 하겠노라고 서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기적을 베풀지 않았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 새벽에 그는 힘없이 감고 있던 눈을 크게 뜨고 서는 그 큰 눈에 아내의 모습을 다 담으려는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였답니다.

아내를 침대에 올라 앉히고서는 자신의 두 다리를 아내의 무릎에 올리고, 아내는 통통 부어오른 남편의 발과 다리를 주물며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을 감추며 눈물을 속으로 삼켰답니다.

남편은 편안하고 시원하다며 예전과 같이 다정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떠나면 어디가?"

"천국"

그렇게도 신실한 남편에게 이토록 가혹한 일을 당케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아내는 통명스럽게 "천국이 있나? 없지!"

"있지"

남편과 마지막 대화가 되었던 그 날 이후 아내는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슬픔과 많은 혼란 중에서도 천국에 간다는 남편의 마지막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은 엄마가 슬퍼서 눈물 흘리고 교회 가는 일을 게을리 하면 "엄마는 천국에 가면 아빠께 혼나겠다."라며 천국에 계신 아빠가 우리를 보고 있다며 여전히 명랑 쾌활합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두 아이의 엄마이기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남달리 아내에게 다정했던 남편의 사랑만큼 힘 있게 살아가는 아내가....

◀좋은 남편▶

좋은 남편은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한다  
나쁜 남편은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궁시령댄다

◀좋은 아내▶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9(시 84)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동부
찬송 Hymn	33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9:1-1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심자가 성가대 (3 남여선교회)
설교 Sermon	『예수를 만난 사람들(1)』 4개요(2)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38장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	은심자가
2	지찬영	강동호	1구역	4남여
9	노은숙	강은미	2구역	3남여
16	박일영	강현정	청년부	4남여
23	이광희	경덕현	3구역	3남여
30	이규임	권정호	4구역	2남여

### ◆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신년주일
9	
16	식사천교주일 연합제직세미나(20)
23	수요예배개강(26)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 정기회의(30)

### 2005년 교회생활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해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 수요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6:00 | 청년부: 토 저녁 4시

### <갈보리교회 방침> 『예배참석과 성경공부』

- 1) 교회당에는 일주일에 주일예배, 수요예배 두 번만 참석합니다.  
\*교회에 꼭 빠지기보다는 예수님께 꼭 빠지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집, 일터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 2) 수요예배의 성경강해는 우리교회만의 성경공부로 세워갑니다.  
\*여러 성경공부과정 이수를 훈장과 자랑스런 경력으로 여기는 것을 멀리합니다.  
\*한번을 공부하고도 오랫동안 담아두는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을 꿈꿉니다  
그래서 더욱 일주일에 두 번의 예배 참석을 중요시합니다

### 1. 교우소식

<이사> \*김홍구 성도. 윤경례 집사.

☎ 626-0035 32 Battersby Ave. Mt Roskill

### 2. "수요예배" 방학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일 7:30 PM>

\*이번 수요예배부터는 찬송을 뜨겁게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은혜에 잠기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3. 교우주소록(임시): 요람 제작을 위해, 제작전까지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 발행(2 Page)

\*전화와 주소 오류가 있는 교우께서는 사과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류된 주소 정정과 함께 Mobile Phone 과 E-Mail 주소를 기록하여 안내석 BOX 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착한 시인▶ 육순의 문턱에서

문종수

아주 낮은  
처음 찾아온 손님같이  
육순이 문지방을 넘어섭니다.

어쩐다  
허나 얼른 마음 고쳐먹고  
충얼거리듯 말합니다.

"어서 오시게나  
오실 줄 알았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는 삶의 그림입니다. 품위있게 나이들어 간 얼굴은 젊은이의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몇일후면 떨어질 꽃잎을 걱정하여 바라보는 화려한 벚꽃이기 보다 밤 길 가다 취하게 하는 야래향기에 보이지 않는 꽃을 상상하듯 보이지 않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젊음보다 더 부러운 것은 아름다운 나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